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인 사 말 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산하 전국 72연합회와 130만 선교여성 모든 분들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을 지나오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은 민족의 자유와 존엄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 번 기도로 나아가야 할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3.1절은 5천 년 역사 가운데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민족이,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으로 일어선 신앙과 희생의 역사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전개된 3.1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그들 안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믿음의 선교여성들입니다. 혼돈과 혼란이 가중되고 양극화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본받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하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섬기는 선교한국의 리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107년 전 온 겨레의 열망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이어가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전국 72연합회와 130만 선교여성들과 함께 각 처소에서 107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오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3월 1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난숙 장로

여 전 도 회 목 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3.1절 기념예배의 취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던 기미년 3월 1일 독립운동에는 여성들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 특히 본회 7-10대 회장이셨던 김마리아 열사의 조국애와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여전도회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기 위해 3.1절 기념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봉헌한 헌금은 1) 선교와 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2) 소외계층 작은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3) 사회적으로 재난과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응급지원을 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 날 예배는 연합회 단위로 각종 기념행사도 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1982년 3월 1일부터 모든 선교여성들이 함께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며 헌금하기를 당부하고 있다.(교도소 선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미혼모 시설 및 목회자유가족협의회 지원)

제45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

- 일시 : 2026년 3월 1일(주)
- 장소 : 각 소속 교회
- 주최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사회봉사부

3.1절 기념 예배순서

인도 : 맡은이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찬　　송 ····· 585장 ····· 다같이
교 독 문 ····· 99번 ····· 다같이
기　　도 ····· 회원중
성경봉독 ····· 암 9:11-12 ····· 회원중
찬　　양 ····· 찬양대
말　　씀 ·····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 설교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546장 ····· 다같이
봉헌기도 ····· 회원중
봉　　헌 ····· 특송 ····· 봉헌위원
독립선언문 낭독 ····· 회원중
합심기도 ····· 다같이

1)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모든 세대가 화합과 이해로 서로를 존중하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2) 한반도에 처한 분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통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3) 여전도회전국연합회 100주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4) 130만 선교여성들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100주년을 준비하며 하나되게 하시고, 민족과 교회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애 국 가 ····· 다같이
축　　도 ····· 설교자
여전도회가 ·····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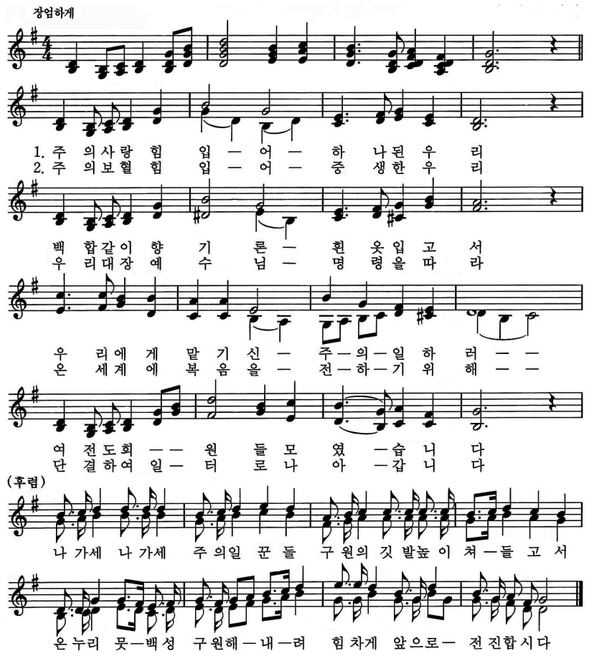
(* 설교본문과 제목은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애　국　가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 전 도 회 가



3.1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